

한파에 쓰러진 노인 병원에 옮긴 전북대생 '훈훈'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유승민씨

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발 빠르게 병원까지 옮겨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운 뒤 조용히 자리를 뜬 한 여학생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전북대 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에 휴학 중인 유승민 학생(24·사진)이다.



승민 씨는 팽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1월 10일 전주 객사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미끄러운 길을 힘겹게 지나는 한 고령의 노인을 목격했다. 평소보다 매우 추운 날씨에 길까지 얼어붙은 탓에 자신의 할아버지와 같은 이 노인에게 대한 걱정이 앞선 할나. 힘겹게 길을 걷던 노인은 이내 미끄러

져 넘어졌다.

깜짝 놀란 승민 씨는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이 노인은 연신 관찮다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기다리는 것도 잊은 채 노인에게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던 승민 씨는 노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갔고, 얼마 안가 또 미끄러져 크게 넘어져 이번엔 머리를 부딪혔다.

다시 노인을 일으킨 승민 씨는 노인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에 함께 가자며 얘기했지만, 노인은 연신 관찮다고 뿌리치고 다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러나 다시 걸음을 옮긴 노인을 가까이에서 부축한 승민씨는 모자 바깥으로 붉은 피를 보게 됐고, 노인의 걸음걸이 등이 현저하게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 의심돼 급히 노인을 예수병원 응급실로 모셨다.

병원에서 노인 가족들에게 연락까지 한 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노인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

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단기 기억상실 증상도 보이므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최고 한파인 날씨에다 머리에 피까지 흘리고 있는 노인에게 한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했다면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며 "학생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한 처치를 받게 돼 좋지 않은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용히 타인의 어려움을 도운 이 학생의 미담은 옆에서 승민 씨를 도와 노인을 병원까지 함께 옮긴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조용히 할 일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던 학생이 너무 대견하다"고 칭찬했다.

승민 씨는 "병원에 옮겼을 때 할아버지가 넘어진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르신지 걱정이다"며 "큰일을 한 것이 아닌데 너무 부끄럽다. 나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효자태권도장 관원들, 저소득가정에 라면 10박스 기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동장 고희진)은 15일 '사랑의 라면'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관내 효자태권도장(관장 이진규)에서 통령기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돕고자 관원들이 정성껏 모아온 용돈으로 라면 10박스를 기탁했다. 평화1동에서는 기탁된 라면을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0가정에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효자태권도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수년째 크고 작은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김성철 우정청장, 동전주우체국 택배원과 소통의 자리 마련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5일 우체국택배 파트너인 육육잡즈(대표이사 박내나)를 찾아 택배 작업중인 동전주우체국 택배종사원을 격려하고 경영진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성철 청장은 동전주우체국 간부와 함께 우체국택배 계약업체를 방문해 택배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택배종사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아울러 계약업체 경영진과 동반성장을 위한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김성철 청장은 "이번 방문으로 택배접수 현장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파트너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장수군 전직원 시가지 제설작업 '구슬땀'

장수군은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20km 가량의 적설량이 내려 주요도로면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대응, 완료하고, 15일 오후 전직원을 동원하여 시가지 제설작업에 나섰다.



이날 최용득 군수와 전직원들은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시가지 도로면, 인도, 결빙구간 등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제설차량 통행이 힘든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등 제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최용득 군수는 "앞으로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 겨울철 도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경운안면향우회 황성만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재경운안면향우회 황성만(66, 쌍암리출신)씨는 지난 12일 운안면 사무소를 방문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써 달라며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황씨는 작년도 면사무소를 찾아 아와 1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어르신에게 생필품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선정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청소년시절 고향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상경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한수철관 대표를 지내고 있다.

오랫동안 운안면장은 "잔담 받은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고루 전달할 계획"이라며 "재해를 맞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꼼꼼히 살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통행일지)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6-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부안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소리나(군산수송초등학교 교사, 전주일보 익산주재 소재관 부장 (유순정 씨 장녀)왕·은다빈(이명숙 씨 아들)군= 일시: 20일(토) 오후 1시, 장소: 전주 The-K웨딩홀(구 교직원공제회관) 4층 오페라홀

▲풍남테니스클럽 회원님들, 2018년 만에 모두 함께 반
기운 마음으로 재회합니다
=일시: 1월 20일(토), 장소: 이종분(전주시 중화산동)

2017 겨울방학 특별기획 곤충아트 특별전
http://www.namwon.go.kr

· 일 시 : 2017. 12. 23(토) ~ 2018. 1. 21(일)
· 장 소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5시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찾아오시는길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문의사항 : 063-620-5751~4

무료체험프로그램

- 종이랑 나무랑 :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화-금) / 닥종이인형만들기, 클레이숫대만들기
- 하나뿐인 반려식물 : 운영시간 : 오후 1시 30분 (화-금) / 다육이화분꾸미기, 마리모수조꾸미기

유료체험프로그램

- 자개거울만들기 :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토, 일)
- 곤충표본만들기 : 운영시간 : 오후 1시30분 (토, 일) / 선착순 30명(50분전 현장접수)

주최·주관 : 남원시 후원 : 산림청